

## [ 사회 ]



## 동반신기 콘서트 “U대회 광주에서”

적인 무대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 국립공원 ‘2진아웃’

국립공원관리공단은 4월부터 오물투기, 쟁기 출입, 산나물 채취, 불법주차, 애완동물 반입 등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5개의 행위에 대해 차로 지도장을 발부하는 경고 처분을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도장을 받은 탑방객은 공단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관리되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2차로 적발될 경우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오물 투기 등 불법

## 2번 적발땐 과태료

공단은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요원들에게 개인휴대용단말기를 지급해 ‘블랙리스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은 특히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흡연과 취사, 인화물질 반입, 동·식물 밀반출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자연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장 발부 없이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봄 행락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야생식물 채취,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키 기원 광주 희망콘서트’가 지난 28일 8천여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열렸다.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5인조 그룹 ‘동반신기’를 비롯해 ‘브리운 아이드 걸스’, ‘V.O.S.’ 등 톱스타들의 열정

/나명주기자 mnja@kwanju.co.kr

## 내일 진단평가… 교육계 긴장 고조

(초 4~중 3)

## 시민모임·전교조 등 “영산강 체험학습·반대 투쟁”

## 교육당국 “엄중 대처”… 대규모 징계 후폭풍 우려

전국의 초·중학생(초 4~중 3)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교사에 대해선 징계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교원노조와 학부모·학생 단체는 ‘일제고사 반대’를 선언하고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해 시험 후 대규모 징계 등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 시민모임은 “31일로 예정된 진단평가일에 시험을 거부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31일 오전 10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학생들과 반대 모임 및 기자회견을 갖고 영산강 일대로 체험학습을 떠날 계획이다. 현재까지 체험학습을 희망한 학생은 35명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 광주지부도 30일 오후 5시 30분 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열기로 했으며,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지역 청소년 연대’는 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진단 평가 반대’ 글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등 반대 시위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평가 당일 체험학습을 불허하고 평가를 방해할 경우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대규모 징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

은 최근 직접 나서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응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진단평가 방해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오는 31일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치른다.

이번 시험은 당초 이달 10일로 날짜가 잡혔다가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적 공개 이후 성적조작 과문이 터지면서 31일로 연기됐다.

진단평가는 학년 초 학생의 학력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이에 맞는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이 평가 대상이다.

/백진표기자 lucky@kwanju.co.kr

## 광주 북구 ‘걷고 싶은 숲길’ 조성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화육교 일대 1.4km 구간이 ‘명품 숲길’(조경도)로 탈바꿈된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다음달 초 문흥동 문화육교~오치동 삼굴다리 1.4km의 완종녹지공간에 메타세쿼이아 숲길과 쉼터 등을 갖춘 ‘걷고 싶은 명품 숲길’이 조성된다. 이번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로 선정된 ‘도심 속 천지인 문화소통 길’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 구간엔 지난 1999년 불법경작과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한 톨지가로부터 기증받은 메타세쿼



이야 1천 그루가 심어져 있다. 구는 또 이 구간에 운동편의시설과 관망대 등을 설치, 생태 탐방 문화 공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ju.co.kr

## 광주 남구 쓰레기 업체 재심사

광주시 남구는 최근 생활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심사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업체 선정을 위한 재심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12일 선정된 2개 업체와 결격사유가 드러난 3개 업체 등 5개 업체를 삼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일반쓰레기 처리업체 6곳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4곳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재심사는 심사위원회(위원 7명)가 구성되는 대로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kwanju.co.kr

## 오늘 날씨

해름 06시 22분  
침침 18시 52분  
달밤 23시 03분  
달낮 23시 03분

## 매마른 대지… 봄비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져 밤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 한때 비	3/14°C
목 포	흐림	3/12°C
여 수	흐림	6/11°C
완 도	흐림	4/13°C
구 래	흐리고 한때 비	0/14°C
해 남	흐림	1/13°C
장 흥	흐림	1/13°C
고 응	흐림	2/13°C
순 천	맑은 뒤 흐림	4/13°C
영 광	맑은 뒤 흐림	0/11°C
전 도	흐림	2/13°C
전 주	흐리고 한때 비	2/13°C
남 원	흐리고 한때 비	1/14°C
흑산도	흐림	4/10°C

비단  
서해 남부 일비  
면비  
남해 서부 일비  
면비

비단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	북~북서	0.5~1.0m	목포	04:33
면비	북~북서	1.0~1.5m	16:33	21:45

남해 서부 일비  
면비  
북~동

남해 서부 일비 면비	북~동	1.0~1.5m	여수	11:04
		1.0~2.0m	4:34	17:10

◆주간날씨  
날짜 31(화)  
날씨 날씨  
최저/최고 3/11 2/13

기상 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기상청)

날짜 31(화)	날씨 날씨	4/1(수)	2(목)	3(금)	4(토)	5(일)
최저/최고	3/11	2/13	0/15	2/17	4/16	4/15

기상 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기상청)

날짜 31(화)

날씨 날씨

최저/최고 3/11 2/13

## 전남 김 작황 최악

## 수온 상승·겨울가뭄 생산량 20~30% 줄듯

전국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의 김 양식이 올해 최악의 작황을 보일 전망이다.

29일 전남도와 시·군 지역 수산사무소에 따르면 3~4월째 생산이 끝나는 암식 김 생산량은 미룬 김 기준으로 지난해 (5천780만 속)에 비해 20~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김 양식 양식이 나빠진 원인은 지역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암식 기간이 짧아진 데다 길 겨울 기록에 강수량이 감소하는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탓

으로 분석된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닷물 온도 상승 탓이다. 실제로 고온 녹동항은 이 달 중순 수온이 섭씨 11.1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9.8도)이나 평년(8.7도)에 비해 1.3~2.3도 높았으며, 목포와 해남 등에서도 작년이나 평년에 비해 많게는 1.5도씩 수온이 올라갔다.

고온 수산사무소는 “평균 수온이 1~2도만 높아도 양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고온 지역은 김 생산액이 지난해의 70~8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원기자 cki@kwanju.co.kr

## 대한통운·택배 차주 마찰 해결 전망

대한통운 광주지사의 계약해지 방침에 반발, 농성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던 개인 택배 차주들의 현장 복귀 길이 열렸다.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29일 “회사 측에 택배 배송단이 인상 등을 요구했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반발, 농성을 벌이면 택배 차주들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27일부터 정규직 채용 접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사 관계자는 “회사와 배송 업무 계약을 맺은 택배 차주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거부됐다는 이유로 집 배송 업무를 중단하고 농성을 벌여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해 계약을 해지하려 했었다”며 “하지만 양측의 상생을 위해 이들 차주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ju.co.kr

38년전통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 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

광주서구점 062-383-1133 광주첨단점 062-974-3050  
순천점 061-755-7114 목포점 061-244-5682  
의산점 063-843-3800 전주점 063-287-2855  
군산점 063-464-5500 전주서창점 063-282-3210

5월 황/금/연/휴 단독 특별 편세기 [전국무료]  
대만 화롄 아류 + 온천 4일 5/1 [한국 10:00~10:00] 799,000 원 949,000 원

PIC 골드 + 환타지 디너쇼 5일 1,790,000 원 → 1,699,000 원 [한국 10:00~10:00] 899,000 원 [한국 10:00~10:00]

일본 도쿄 도쿄 디즈니랜드 3일 1,590,000 원 [한국 10:00~10:00] 899,000 원 [한국 10:00~10:00]

도쿄 도쿄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SeaLand 3일 1,590,000 원 [한국 10:00~10:00] 899,000 원 [한국 10:00~10:00]

도쿄 도쿄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SeaLand+ 도쿄 디즈니SeaLand 3일 1,590,000 원 [한국 10:00~10:00] 899,000 원 [한국 10:00~10:00]

중국 상해 10일 1,199,000 원 [한국 10:00~10:00] 1,099,000 원 [한국 10:00~10:00]

광산 BONUS 상하 5일 1,099,000 원 [한국 10:00~10:00]

5월 출발 롯데관광 쇼핑 페스티벌 인천출발

파타야 방콕 7/5 일 599,000 원 → 499,000 원 [한국 10:00~10:00] 5/25 일 599,000 원 [한국 10:00~10:00]

상해, 항주, 삼장산,